

# “현혈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 나눔”

광주·전남 혈액 보유량 3.5일치…‘관심’ 단계 지속  
코로나 이후 10·20대 참여 급감…단체 현혈도 줄어

“현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나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단체 현혈과 10·20대의 현혈 감소로 혈액 수급난이 고착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은 적정 수준을 크게 밟들며 ‘관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0일 오전 광주 동구 현혈의 집 총장으로서 혈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행사를 마련한 15개 친구단 대표가 운영되는 곳은 두 자리뿐이었다. 평일 방문객이 적은 충장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예년보다 현혈 참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현혈 중이던 정세민씨(23)는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현혈하고 있다”며 “최근



10일 광주 동구 현혈의집 총장으로서 한 시민이 현혈에 참여하고 있다.

적십자에서 혈액 부족 안내 문지를 받고 바로 방문했다. ‘나부터 하자’는 마음이 미달한다. 정부 기준으로 보유량 5일 미만은 ‘관심’,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일 경우 ‘심각’ 단계다.

현혈 중이던 정세민씨(23)는 “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현혈하고 있다”며 “최근

인 2020년 1만2144명으로 반토막 났으며, 이후에도 1만2000~1만5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혈자의 수급 구조가 무너지면서 현혈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전남혈액원도 수능 직후 고3·수험생 대상 기념품 제공 이벤트 등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학급 수가 줄면서 10대 현혈 인구가 자연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이후 현혈 문화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30대 이상 직장인·중장년층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인의 현혈 공가 확대, 현혈자 예우 조례 개정 등 지역 차원의 동참 분위기 조성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임재웅 인턴기자 djwadod@031.60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5·18 추모글’로 구금·제적…위자료 증액

법원, A교사에 5190만원 선고…“중대한 인권침해”

5·18민주화운동 1주기 계시물을 작성·배부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하고 다니던 대학교에서 재직했던 A교사의 국가손해배상소송 위자료가 증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정부가 A씨에게 징역하도록 책임했던 정신적 피해 위자료 3190만원을 파기하고 5190만원으로 증액해 선고했다.

23살 대학생이던 A씨는 1981년 5월 22일 광주에서 ‘민주학우 5월 결기문’이라는 유인물을 초안을 작성했다. 광주시민들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무참히 살해됐고 군부 독재를 추방해야 한다는 1주기 추모글이었다.

그는 이 유인물을 학생들과 함께 700매를 제작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A씨는 공수부대원들에게 불잡혀 127일간 광주교도소 등에 구금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징역으로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졸업과 취업 등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는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23세의 나이에 불법 구금돼 약 30년동안 교사가 될 기회를 잃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A씨가 구금 기간 매일 밤마다 팔을 벌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북구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철저한 검증을”

공무원노조, 수의계약 비위 경력 중대한 문제…우려 표명

광주 북구 공무원노조가 구의원 재직 시절 수의계약 비위 논란을 일으킨 이현수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를 향해 제기된 의혹들은 임명권을 가진 북구와 공단의 공공성·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서 지역사회 전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혹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공개△후보자의 자진 해명 및 검증 요청△인사 검증 제계 전면 개선△후보자 추천 배경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 등을 북구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문제는) 공공기관 인사 검증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 됐다”며 “후보자의 과거 이력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차 환경 위탁 사업을 종괄하는 이사장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 북구는 물의를 빚은 후보자를 추천한 이유를 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현수 후보에 대한 구의회 인사 청문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됐다.

이어 “이사장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산구, ‘모두의 쉼터’ 개관 특별 초대전 10일 광주 광산구청 1층 시민문화공간 ‘모두의 쉼터’ 개관 기념 ‘건축사 특별 초대전’을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특별 초대전은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소속 건축사 15명이 50여점의 미술 작품을 선보이며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모두의 쉼터’는 민원인과 시민이 머물며 휴식·문화·소통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 공간으로, 광산구는 모두의 쉼터를 활용해 전시, 소규모 문화행사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산구 ‘하남동 안심 골목길’ 조성 완료

### 장수천 주변 1구간 이어 통학로 2구간 보행 안전 개선

광주 광산구가 시민 일상의 안전 체감도 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하남동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2구간까지 마무리됐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학교가 많은 하남동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23년부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남동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장수천으로 이어지는 1구간(산정동 1057~1059번지 일원 300m) 조성을 마친 데 이어 산정중학교부터 산정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있는 2구간(산정동

1118번지 일원 250m)의 보행 환경 개선에 착수했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3회를 비롯해 현장점검, 디자인 의견조회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아파트 입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학교 관계자 등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실시설계 단계부터 공사 완료까지 조형물 형태, 조명 밝기·색온도, 알림 조명 설치 위치 등 세부 내용을 주민, 학생 등에 공유하고, 선행하는 방향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성 조형물, 편히

머물며 쉴 수 있는 휴식 의자(베마형 벤치) 등을 조성해 골목길 전반을 밝고 안전한 통학로로 재탄생시켰다. 또 길الم뚝(볼라드)에 엘리어(LED) 등을 달고, 학교와 아파트 담장에도 범죄예방경설계(CPTED)를 적용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야간 보행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

조도가 부족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조명 위치, 밝기, 색온도 등을 조정해 보행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했다. 학교 통학로 입구에 설치한 알림 조명(로고젝터) 디자인에는 산정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문구와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을 반영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 한국철도공사 노사 임금 교섭 파행…오늘 총파업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임금 교섭이 파행됨에 따라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11일과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 코레일 본부에서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30분 만에 논의가 종료됐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철도노조는 예고한 대로 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이다.

호남본부도 전북 전주시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에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조합원 1700여 명 중 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본부 조합원은 총 2700여명이고, 이 중 1200명은 필수유지 인력에 해당한다.

파업으로 인해 광주송정역을 비롯한 호

남권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열차 감편과 지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본부 광주·전남본부 측은 파업 기간 동안 KTX 운행률이 평시 대비 60~7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열차 운행률은 50% 이하로 떨어지고 회화열차는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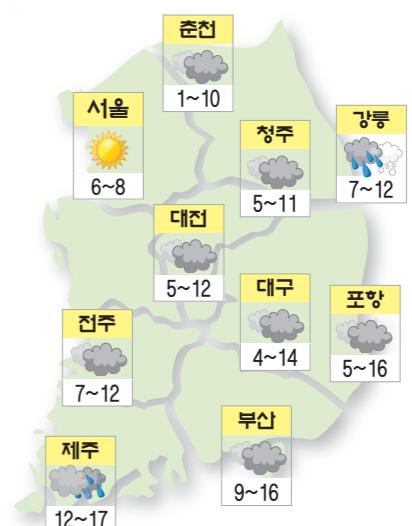
전체 평균 열차 운행률은 예년 파업과 비슷한 약 70% 수준으로 내다봤다.

앞서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 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해설 07:30 일설 ---  
해설 17:21 일설 12:23



광주	7~12
목포	9~11
여수	9~14
순천	5~14
구례	5~13
광주	8~13
완도	9~14
목포	11~13
고흥	5~15
진도	9~13

밀물 (고) 06:34 / 19:20  
썰물 (저) 11:44 / ---

밀물 (고) 01:28 / 14:00  
썰물 (저) 07:23 / 20:19

## 허위 광고·무허가 학원 운영

만년필 ○…법무부 인증 기관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 한 60대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고등교육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

A씨는 광산구 한 건물에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

그는 2개 학년 4학기제 커리큘럼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입학금 명복으로 원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을 받았다고.

해당 학원은 법무부가 인정하는 교정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또 건물 내외부에는 법무부 인증 기관이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교정복지사 응시생 5명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고, 2023년에는 환경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이 되면 100% 취업할 수 있다는 식으로 5명으로부터 266만원을 받아 쟁기 혐의도 적용.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구속영장

### 감사관 채용 과정 직권남용 혐의

‘고교 동창이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김진용 부장검사는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감에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께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임영진 기자